

영국, 새로운 직불제가 유기농업에 불이익

많은 유기농민들과 유기낙농업자들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직불제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는 다년간에 걸쳐 200여 유기농민과 600여 유기낙농업자들이 새로운 CAP 직불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CAP 직불제 하에서 유기농민들은 관행농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불금을 받을 것이며, 기타 보상금의 혜택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기농식품과 유기농업의 주요 담당기관인 영국토양협회는 영국의 환경식품농촌개발부(DEFRA), 스코틀랜드의 환경농촌부(SEERAD), 웨일즈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함께 홍보하자고 요청한 상태이다.

유기농업을 다년간 지속해온 농민들

이전의 CAP 직불제에서는 관행농민들에게 젖소(dairy cattle), 식용우(beef cattle), 양(sheep)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불금을 지원하거나 많은 농경지를 보유한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급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기농민들은 낮은 면적당 사육 가축 두수를 보이고 비보조금 작물을 넓은 재배면지에서 경작하고 있다. 영국토양협회는 유기농민들이 관행농민들에 비해 40%나 적은 CAP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직불제(단일직불제, Single payment scheme)는 과거의 보조금 수준에 기초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유기농민들은 새로운 직불제 하에서도 이전과 같은 적은 양의 자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기농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영국의 환경식품농촌개발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DEFRA), 스코틀랜드의 환경농촌부(SEERAD), 웨일즈 의회는 ‘hardship payment’를 준비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1997~2002년 동안의 농업환경계획안(Agri-environment scheme)¹⁾에 참여하고, 또한 농업환경계획안의 요구사항을 실천해서 낮은 보조금을 수취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는 1994년²⁾ 이전에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농가들은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hardship payment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영국토양협회는 이러한 유기농가들이 대략 200여 농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토양협회의 홀든(Patrick Holden) 이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의 주장은 매우 불공정한 것입니다. 1994년 이전에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척자들이며, 지난 10년 동안 환경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어떤 공적자금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공적자금과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입니다.”

1) 유기농업 원조 계획안(Organic Aid Scheme), 경관 보존(Countryside Stewardship) 등을 말한다.

2) 유기농업에 대한 원조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이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유기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양 국가에서는 영국의 농지면적에 근거한 직불제(area-based payment)와 같은 보다 더 공정한 방향으로의 정책 개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003년 영국토양협회는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에 CAP 개혁에 대한 자문의 형식으로 이와 같은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유기농업 조직의 일종의 로비(lobbying)의 수준에 머물렀다.

해결책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의 직불제는 과거 수준에 따라 지불금을 산정하는 직불제에서 농지면적에 근거하여 지불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기농민과 비유기농민은 동일한 수준의 지불금을 받게 될 것이다. 영국토양협회는 다년간 유기농업을 지속해온 농민들에게 즉시 그에 걸맞는 지불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사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농지면적에 따른 직불금 산정방식 대신 현재와 같은 과거 지급수준에 따른 직불금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영국토양협회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유기농민들이 ‘hardship payment’를 지급 받을 수 없는 대신, 관행농민들이 받는 직불금 수준만큼을 국가 유보금(National Reserve,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와 스코틀랜드 환경농촌부, 그리고 웨일즈 의회에 의해 조성된 자금원)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직불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에서 각기 달리 산정되지만, 모든 직불금은 과거에 지급되었던 보조금 수준과 연관을 맺게 될 것이다.

유기 낙농업자에 대한 지불

유기·비유기 낙농업자들은 2005년 3월 31일에 결정될 우유 할당량(개별 농민들에게 한 해 동안 생산이 허락되는 우유의 양)에 기초하여 지불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기 낙농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두수의 젖소를 키우는 한편 조방적인 방목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유기 낙농업자들에 비해 우유 생산량이 적은 편이다.

영국토양협회는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와 스코틀랜드 환경농촌부, 그리고 웨일즈 의회에 유기낙농업자에게 국가 유보금(National Reserve)을 통한 직불금 지급을 요청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는 유기낙농업자들에게 농지면적에 기초한 직불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웨일즈에서는 웨일즈 농업환경계획안에 참여한 농민들에게만 국가유보금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고, EU 농업환경계획안에 참여한 낙농업자들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타 사항

‘Hadship payment’에 대한 지원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5년 1월부터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가 시행되었지만,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다. 단일직불제 신청의 한 부분인 국가유보금(National Reserve)에 대한 지원은 2005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처: 영국토양협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